

## 심리-사회적 갈등과 인간중심적 접근\*

이 영 희

숙명여대 교육학과

인간의 심리-사회 문화적 갈등해결에 대한 인간중심적 접근은 심리학의 발달사에서 볼 때, 정신분석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에 이어 출현한 패러다임이다. 인간중심적 접근은 인간의 심리-사회적 갈등해결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며, 그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발견해 내려는 시도이다.

카알 로저스(Carl R. Rogers, 1902-1987)는 인간중심적 접근이라는 그의 상담이론을 개인적인 문제에만 국한하여 적용하지 않고, 심리-사회적 갈등의 문제에게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그러한 적용 확장의 가능성을 그 스스로 여러 집단적 갈등상황에 촉진자의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낸 체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이러한 로저스의 주장을 반대하는 이도 있지만, 사회적 갈등문제의 심리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심리학자들의 견해는 로저스와 같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심리-사회적 갈등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보는 관점이 상이할 수 있는데, 로저스는 이 점에서도 가장 낙관적이고 적극적이다. 대부분의 동료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선과 악을 대등한 이중적 본성으로 보는 데 반해, 로저스는 선을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인간관에 바탕을 둔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접근으로 우리의 남북문제를 볼 때, 통일에 장애요인이 되는 심리-사회적 갈등문제를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중심적 접근의 한계논쟁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상담이론을 사회적 갈등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가? 로저스 자신은 상담이론과 방법을 집단간의 갈등문제

에까지 확장해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Rogers, 1970). 개인상담에서 집단상담으로 대상이 확장되어가는 것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다. 집단적 관계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완전

\*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1995학년도 교비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히 떠나 철저히 고립된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집단상담에서의 집단은 가족집단으로부터, 학교학급의 집단, 직장동료의 집단, 노동자 집단, 경영자 집단, 종교 집단, 정치가 집단, 외교관 집단, 종족 집단, 성별 집단, 세대별 집단, 이념 집단 등으로 확대 분류될 수 있다 (Rogers, 1973).

개인에서 출발하는 상담의 목표는 실상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할 수 없는 집단적 문제상황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인식되고, 집단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와 연관되는 양자간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영자와 노동자 집단간의 갈등문제가 그렇고, 인종차별의 문제가 그렇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문제도 그렇고, 종교간의 갈등문제도 그렇다. 이념집단들간의 갈등이 그렇고, 전쟁으로 이끌게 되는 온갖 집단적 갈등도 그렇다.

로저스는 집단차원의 갈등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측하였다. 사회적인 기구들, 예컨대 행정기구, 교육기구, 종교기구, 산업기구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을 때는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기구 자체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로저스는 그런 변화를 촉진시켜 줄 이론이나 방법이 그러한 사회적 갈등문제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소신을 그의 저서들에서 이미 밝히고 있다 (Rogers, 1970). 그런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하여 만년의 로저스는 국내외를 두루 다니면서 온갖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 자신의 인간중심적 접근이론과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그런 체험적 실험 중에서 성공적이었던 하나

의 예는 미국의 전국 보건협의회대회에 빈민계층의 시민대표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한 모임에서의 일이었다. 그 회의에는 미국의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의교보협회사협회 및 의료관계기관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이들 단체들의 대회에 초청받은 시민대표들은 도심의 빈민가나 빈농지역의 사람들이었다. 주로 빈민가의 흑인들과 멕시코계의 시민들이 초청된 대표를 구성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초청한 단체는 미국의 부유층을 대표하고 있었으며, 초청받은 시민들은 빈민층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런 두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대회였으므로 개회 벽두부터 시민대표들의 감정적 반응이 대회 자체를 무산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로저스일행은 촉진자로 개입하여 대회를 성사시키고, 건설적인 의안을 채택하는데까지 이르게 한 과정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Rogers, 1982).

또 하나의 예는 북아일랜드의 종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집단의 이야기이다. 개신교측과 천주교측이 폭력으로 대결해 온 북아일랜드의 문제는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역사적 문제이다. 로저스는 개신교 대표 다섯 명과 천주교 대표 네 명으로 구성된 집단과 상담하면서 서로 원수처럼 대하던 그들이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기적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다 (Rogers, 1982).

로저스가 말하는 촉진자의 역할은 먼저 적대적인 관계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감정표현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이때 촉진자는 대화

의 길, 의사소통의 문을 열어주는 '소통자'라고 할 수 있다. 대화가 시작되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런 이해하는 마음속에서 두 집단간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

로저스는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사회적 집단적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나 인간중심적 접근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Rogers, 1970). 그의 실험적, 체험적 결과가 그의 주장을 입증해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이 사회적 갈등문제에까지 확장 적용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았다.

로저스의 제자였으며 동료였던 빌 쿨슨(Bill Coulson)은 가장 극단적인 그의 비판자였다. 쿨슨은 로저스가 시카고대학의 상담실과 연구실에 남아 있으면서 개인상담의 이론과 실천에만 집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중심적 상담이론을 사회문제에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상담실 밖을 뛰어나간 것은 로저스생애의 큰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쿨슨은 미국 전역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나가서 자신과 로저스가 미국의 학생들과 가정들을 잘못된 상담이론으로 오도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했다. 이러한 쿨슨의 반성과 비판은 로저스 자신이 만년에는 인간중심적 접근의 상담이론을 포기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쿨슨의 열띤 비판에도 불구하고, 로저스의 영향력은 커 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Thorne, 1992).

인간중심 상담이론은 넓게 보면 인간주의 심리학에 속한다. 상담에서의 인간중심적 접근과 심리학에서의 인간본의적 주장은 같은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캠벨(Elizabeth Campbell)은 인간주의적 심리학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사람이 중요하며,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개인의 그런 역량은 성장을 도와주는 좋은 환경(a nourishing environment)을 만났을 때 개발되고 그렇지 못할 때 개발을 멈추게 된다. 따라서 인본주의 심리학은 개인의 성장, 즉 자기개발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Campbell, 1984).

이는 로저스의 상담이론과 같은 맥락의 전제이다. 캠벨과 로저스가 합의하는 바는 이러한 전제만이 아니라, 심리학이 개인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한계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캠벨은 인간주의 심리학이 아직도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전제한다면, 그것은 천진난만함의 소치일 뿐이라고 역설한다. 그런 천진난만함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캠벨은 'the end of innocence'라고 표현한다. 인본주의 심리학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만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로, 전쟁의 문제나 지구촌의 환경문제와 같은 절박한 사회적 문제, 즉 인류 전체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본주의 심리학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비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캠벨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는 개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의 행동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사회문제에서는 항상 존재한다. 또한 사회적 문제에는 빠르고 쉬운 해결이 없다는 것이다. 해결을 위한 행위의 결과가 의도한 바대로 안 될 수도 있으며, 기대하는 만큼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캠벨은 인본주의 심리학이 사회문제에 대한 천진난만한 믿음을 버리고, 문제상황에 직면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감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를 대해야 한다는 점이다(Campbell, 1984).

캠벨의 입장에서 로저스의 낙관론은 천진난만하게 보일 수 있다. 예컨대, 북아일랜드의 개신교도와 천주교도의 끝없는 보복싸움은 몇몇 사람들의 일시적 화해로 해결될 수 없다. 로저스의 성공적인 집단상담이 그 이후 얼마 동안 문제해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북 아일랜드의 문제가 오늘 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말해 준다. 의료혜택에 관한 집단상담의 실험결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의료혜택에 관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었으나, 미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빈부차이의 문제나 그것을 불가피하게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의료혜택의 평등화는 실현되기 어렵다. 빈민계층의 시민대표들이 원하는 것만큼 기존의 사회체제는 쉽게 바뀔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줄 정책적 배려는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변화

가 곧 사회 전체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순진무구한 희망과 기대를 하게 할 수 있다. 스승인 로저스에 대한 쿨손의 극단적인 비판도 이러한 개인과 사회간의 괴리를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이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쿨손 자신은 독실한 천주교도이기 때문에 천주교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 또는 조직체를 통한 지속적인 개혁의 노력에 비교하여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이 갖는 한계점을 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잘못된 것일까? 사회적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간중심적 접근의 가능성을 확고하게 믿고 실천한 로저스와 지금도 확산되고 심화되는 그의 영향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사회적 갈등문제에 심리학적인 해결방법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사회적 갈등 자체가 그 사회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심리 또는 집단의 심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로저스의 주장과 그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학적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갈등의 심리적 측면

본 논문의 제목에 '심리-사회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사회적 갈등문제가 심리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심리학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자는 의미이다. 사회적 갈등문제를 심리학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프로이트(S. Freud)는 그의 저서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에서 현대문명의 문제자체를 심리학적으로 보았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불안해진다는 문제라고 했다. 이러한 불행과 불안의 원인은 현대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과 무기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데 있으며, 특히 우리 인간에게 공격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정복하게 한 현대과학의 힘이 죽음의 본능과 공격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집단에게 주어졌으므로 파멸의 결과가 예상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Freud, 1948).

스키너(B. F. Skinner)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사회의 미래를 경고한다. 그의 저서 *Beyond Freedom of Dignity*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만을 강조하고, 전체사회가 필요로 하는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모두 파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적 개인주의 사회의 기본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반성을 요구하는 심리학자의 주장이다. 스키너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기존 사회로부터 온갖 종류의 강화를 받아오고 있는데, 그러한 강화를 통하여 전체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시민을 만들어 내느냐 아니면 반사회적 시민을 만들어 내느냐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개인주의가 패배하는 사회에서는 인류적 차원의 문제를 의식하고 책임지는 시민을 길러 낼 수 없다는 것이 스키너의 경고이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개인들을 무책임한 강화조건에 맡

겨 두는 것과 같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제한하려는 전체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인을 강화하는 것, 즉 계획된 강화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회보다는 훨씬 통제된 전체주의적 사회질서를 의미한다. 현재의 서구사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스키너의 사회관이다 (Skinner, 1971).

로저스는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그는 심리학자로서, 특히 개인의 성장과 인간관계의 개선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상담자로서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 발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하자면, 로저스가 국제적인 반핵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은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미국, 소련 등의 강대국 지도자들의 심리적 문제가 핵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갈등문제는 지도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조건으로 개입된다는 것이다(Orlov, 1992).

이러한 미국의 전대통령들을 비롯해 정치가들이나 군사전문가들이 말하는 제한된 핵전쟁은 실제 가능한 상황을 무시한 위험한 발언이다. 강대국간의 핵전쟁에는 지역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지역적으로 시작된 핵전쟁은 필연적으로 전면전쟁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핵전쟁은 아주 짧은 시간에 결과가 결정되는 전쟁이며, 따라서 누가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제 공격을 하는 쪽이 그나마 피해를 적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았

을 때 핵전쟁에서의 승리는 피해를 적게 입는 쪽의 승리를 의미한다. 피해를 적게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고 질문하면, 그들의 대답은 전체 인구의 5%가 살아남느냐, 15% 살아남느냐의 차이를 말한다고 답한다. 물론 그런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바보다는 못하지만, 핵전쟁이 불가피하다면 거기에도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 있다는 심리의 표현이다.

인구의 15%가 살아남는 전쟁을 승리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전쟁을 통계숫자로만 계산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전쟁을 또 하나의 게임으로만 보는 것이다. 15%가 살아남고 85%가 죽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의 건물이 15%만 남고 모두 파괴되는 전쟁을 말할 때와 똑같은 통계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전쟁에서 살아남는 15%의 사람들이 당면하게 될 생존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이다(Rogers, 1982).

전 인류를 위협하는 핵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통령들이나 지도급 인사들의 그와 같은 공공연한 발언은 국민들을 불안감을 고양시키는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핵전쟁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반복된 발언이 있는 후, 미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젊은이들이 5년 이내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고 한다. 설사 그런 핵전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핵방사능으로 인한 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심지어는 핵전쟁의 가능성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서 알콜 중독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젊은이도 있었다

고 한다(Rogers, 1982).

이처럼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될 핵전쟁을 왜 방지할 수 없는가? 왜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을 위한 핵무기경쟁을 계속하고 있는가? 프로이드는 인간의 공격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로저스는 집단간의 불신을 그 이유로 말한다. 이는 서로가 상대방을 악한으로 믿는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소련을 침략자로 소련은 미국을 침략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불신은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원인이 되고 있는 심리적 문제이다. 로저스는 사회적 갈등문제의 바탕에 이러한 상대적 불신이나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을, 즉 그는 심리적 원인이 사회적 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이 문제해결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Rogers, 1973, 1977, 1980, 1982).

로저스는 낙관적이며 적극적이다. 프로이드는 비관적이며 소극적이다. 로저스는 상담실을 나와서 반핵 평화운동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런 적극성 뒤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그의 낙관적 믿음이 있다. 로저스의 낙관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로저스는 사회적 문제 또는 사회악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 인간의 본성과 사회악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로저스의 인간관과 선악관은 어떤 것인가? 어떤 믿음이 그를 낙관론자가 되게 하는가?

## 로저스의 인간관과 선악관

인간에게는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는 로저스의 인간관은 기독교목사이며

신학자 니버(Reinhold Nibuhr)와 동료 인본주의 심리학자 메이(Rollo May)와의 견해차이에 서 명확하게 드러난다(Kirshenbaum, 1989).

니버는 미국태생의 개신교 신학자로서는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그는 1915년부터 1928년까지 자동차 도사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에서 목회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목사가 되었다. 진보적이고 좀 과격한 목사라는 평판을 듣기도 했다. 그 이후에는 뉴욕에 있는 유니온신학교의 교수로 여생을 지나면서 많은 저서를 남긴 신학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니버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상의 소유자였으나, 신학적으로는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택한 특이한 사람이었다. 신학의 세속화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맹렬히 비판하는 입장에 선 신학자였으나, 이러한 니버의 신학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원리를 믿는 기독교의 교리였다(Kirshenbaum & Henderson, 1989). 우리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원은 하느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다. 개인으로서나 집단으로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원죄 때문이며, 그리고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독교적인 구원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로저스는 니버의 저서 *The Self and the Drama of History*를 평하는 글에서 니버와의 견해차이를 피력한다. 로저스는 먼저 니버의 신학적 방법이나 태도에 대해 비판한다. 보수

주의적 신학을 지지하는 니버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세속적인 이론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지킬 것을 강조한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므로 교리에 대한 그의 주장은 독단적인 주장이 되고 만다. 자아와 역사의 관계를 논하는 그의 저서에서도 니버는 어떠한 과학적 설명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로저스에게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과학적 독단이다. 로저스는 어떤 이론이든 경험과학적 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이론적 가설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가설에 대해서도 과학적 탐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로저스의 과학적 태도이다.

또 한 가지 로저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니버의 사고방식은 모든 현상을 대립적 관계 또는 갈등의 관계로 설명하려는 경향이다. 아마 이는 니버가 목회자로서 체험한 노사갈등의 문제가 사회와 역사를 보는 그의 관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10여 년간의 체험에서 본 노동문제가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대로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못했던 것 같다. 모든 사회적 문제는 대립되는 힘의 갈등문제라고 하는 관점이 니버에게는 체험적에서 비롯되어 정당화되고 일반화된 관점으로 남아 있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로저스의 입장에서 보면, 갈등의 문제가 아닌 것까지도 갈등의 문제로 보는 니버의 관점은 문제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의 원죄설로 이런 성격의 관

점에 나온 것일 수 있다. 종교적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의식하게 해야 하며, 그것이 보편적인 죄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원죄'라는 개념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로저스는 니버가 인간의 원죄설을 해석하는 내용에서 가장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니버는 개인이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개발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 등을 모두 원죄로 간주한다. 그는 이러한 특성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로저스는 우리인간에게 그런 이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자기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이란 대체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 속에 있는 잠재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도움이다. 원죄라는 관념으로 인해 중압감에 괴로워하는 개인이 아니라, 자유롭게 창조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자아개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저스는 밖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와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강조한다. 로저스는 개개인 속에 있는 힘을 믿는다. 선을 지향하는 힘이 모든 개인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 (Kirshenbaum & Henderson, 1989).

니버와 로저스의 견해차이는 그들이 문제시한 인간형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니버는 노사 갈등의 길에 관여한 목회자였으므로, 권력자들의 비리와 죄악을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보았던 것 같다. 즉 그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기

심이 이상적인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인간의 원리라고 판단했다. 인간 스스로가 마치 하느님이 된 듯이 절대권력을 누리면서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오만함이 모든 사회악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결의 방법이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면서 인간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구원을 받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 기독교 신학자 니버의 해답이다.

한편, 로저스는 상담자로서 내담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체험을 통하여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 그의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은 그런 내담자들의 편에서 그들 자신이 문제해결을 위한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로저스가 내담자로서 만나는 사람들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억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지배와 억압으로 인하여 자기개발의 길을 차단당한 사람들이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 속에 있는 창조적 힘을 믿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들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다(Freire, 1970). 이때 사람들에게 절대존재적인 원죄를 말하고,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절대존재적인 해결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지배억압의 관계를 영속화시키는 처사가 되고 만다. 로저스는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이 구속되는 것을 반대한다. 스스로 자유롭게 창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종교적 예속을 반대한다. 즉 하느님의 절대 권능 앞에서 완전히 의존적인 자기비하를 요구하는 기독교적 해결방법을 로저스는 완강하게 반대한다



(Rogers, 1980).

매이(Rollo May)와 로저스의 논쟁에서도 종교에 대한 견해차이가 기본적으로 드러난다. 매이는 인간 속에 있는 악의 본능을 강조한다.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이나 인간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나 사회현상에서 악의 실재와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이의 주장이다. 인간본성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이 역시 종교적 해답의 길을 제시한다. 심리학자이면서 기독교 목사인 매이의 기본입장은 니버와 같은 바탕 위에서 서 있는 것이다(May, 1972).

인간의 본성 안에 악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매이의 주장에 대하여 로저스가 단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로저스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악의 문제보다는 왜 인간이 악을 행하게 되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로저스는 문화적 이유들이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조건을 제거해주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선의 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로저스는 여전히 인간본성의 선함을 확신하고 있다. 이는 선을 행하게 하는 그 힘을 사람마다 본래의 자기에게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다(Rogers, 1978, 1980). 어떻게 그런 인간의 본성을 믿을 수 있는가? 증오와 적대감로 얽혀진 개인관계나 집단관계가 이해와 협조의 관계로 변하는 과정에 대한 로저스 자신의 체험은 그러한 주

장의 바탕이 된다. 경험적 근거에서 비롯된 믿음인 것이다(Sanford, 1995).

로저스는 종교적 구속을 반대하는데 이는 구속적인 종교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그런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때에만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로저스의 이러한 반종교적, 반기독교적 주장 때문에 그를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모두 기독교인들이다. 개신교나 천주교의 독실한 신자들이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로저스를 강하게 비판한다. 종교, 특히 기독교로부터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로저스의 전기를 쓴 Brian Thome은 ‘종교적’인 로저스의 이미지로 그의 전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지금부터 50년 후 로저스가 어떤 심리학자로 기억될 것인가를 예상해 본다. 인간중심적 접근이론을 제창한 심리학자로서의 로저스보다는 우리인간 속에 있는 정신적 힘(spiritual reality)을 감지할 수 있게 해 준 심리학자로 기억될 수 있으리라고 한다. 기성종교가 그런 정신적 힘의 작용을 중재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로저스는 세속적인 과학의 이론과 실천을 통하여 내면세계의 정신과 정신이 교감할 수 있는 체험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하나의 정신의 힘과 또 다른 정신의 힘이 연결의 되어 작용할 때 새로운 차원의 정신세계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Thorne, 1992).

로저스의 믿음은 개개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의 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작용할 때 창출되는 새로운 차원의 정신력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 정신적인 힘이 서로 단절되어 있을 때 그 관계는 적대관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결속된 정신력이 한 집단의 정신력으로 작용하면서 집단간의 연결이 끊어져 있을 때 집단적 대립과 적대관계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문제는 끊어진 관계를 연결관계로 복원시키는 데 있다.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주고, 감정표출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정신적인 교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는 도움이 필요하다. 로저스의 낙관주의는 그런 정신적 힘의 창출가능성을 믿는데 근거하고 있으며, 그런 정신적 연결관계를 맺어 줄 수 있는 촉진자, 즉 상담자의 정신력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로저스는 그런 정신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종교를 거부한 세속적 과학자였으나, 종교적 교주가 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로저스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도 그런 정신력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O'hala, 1995).

정신과 정신이 연결될 때 새로운 차원의 힘으로 나타난다는 로저스의 믿음은 동양의 도가와 불가사상으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더 명료해지는 것 같다. 도교(道敎)가 말하는 도의 힘[德]은 길이 통합으로써 생기는 힘이다. 이는 길을 따라서 서로 연결된 관계를 이해할 때 얻게 되는 힘을 말한다. 그 길이 막히면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생명의 원리가 그러하며, 자연의 도리가 모두 그러하다. 불교에서도 연기(緣起)라는 개념을 통하여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인연이 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가르친다. 연기관계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자연에 역행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적 접근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촉진자'라

고 하는 것은 그런 연기적 관계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기적 연결관계가 복원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힘이 소생하도록 인식시켜 주는 역할을 말한다(이영이, 1991).

로저스를 도가나 불교와 관련시켜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도는 이미 우리 동양쪽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제는 그런 시도가 단순히 이론적 탐구의 차원을 넘어서 로저스 자신이 실천한 바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에 적용하여, 연구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인간중심적 접근이 평화통일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 평화통일의 인간중심적 접근

최근 우리사회는 북한동포에게 식량 보내는 문제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쌀을 모으는 일을 정부가 금지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들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정부가 그것을 불법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말한다(한겨레신문, 1997. 5. 14). 우리동포들이 북쪽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남쪽의 우리가 자유롭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누구나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중론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동포를 돕는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나중에 통일을 의논할 때 북쪽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을 사게 되리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 평화통일을 원한다면서도 굽주리고 있는 북쪽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이다.

우리 정부는 왜 북한돕기에 참여하는 민간차원의 운동을 억제하는 것일까?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뜻은 무엇일까? 인도주의적 배려를 억압해 가면서까지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은 무엇일까?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정치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우리정부의 그러한 정책적 선택은 현 북한 권력층과의 평화적 대화를 통한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기본판단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통일보다는 북쪽의 정권이 붕괴되어 흡수통일이 되는 쪽으로 사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북쪽의 현권력체제가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런 전쟁도발 없이는 지금의 북한체제가 붕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또한 북쪽의 전쟁도발에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남쪽과 그 우방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계산이 전제되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도발전쟁은 짧은 기간에 끝날 수 있을 것이며, 양쪽의 희생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전쟁을 통한 통일이 불가피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말한 미국 대통령들의 생각과 같은 것이다. 핵전쟁의 희생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하여 통계숫자를 들면서 전쟁놀이라는 게임을 이야기하듯 말하는 대통령들의 마음 상태가 이상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정치가들의 그런 발언은 일반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우리 경우도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전쟁의 불안을 갖게 한다. 평화통일이 우리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 경우도 일반시민들의 불안은 전쟁의 후유증에까지 미치고 있다. 여기에서 또 한번의 동족상잔이 남겨놓을 역사적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통일문제를 전략적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든지, 정책적 편의만을 고려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 이후의 문제를 통일자체의 문제보다 더 크고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통일문제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가들은 통일문제를 그들만 주도하고 지배하겠다는 야심을 버리지 않는다. 비정치가들이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남북문제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정치가들은 못마땅하게 여긴다. 하지만, 정치가들과 비정치가들간의 이러한 갈등은 정치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역사의 발전을 뜻할 수 있다. 비정치가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정치의 민주화를 의미할 수 있다. 희망적인 것은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한국심리학회회는 1993년에 이미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 통

일과 심리적 화합”이라는 주제로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이 심포지움에서 차재호는 통일에 관련된 심리학적 문제들을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의 문제들로 나누어 고찰하였다(차재호, 1993). 통일 이전의 문제, 즉 통일을 촉진하는 과정의 심리적 문제는 관련된 당사들의 불안을 제거하거나 해소시킴으로써 통일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일이라고 했다. 불안을 느낄 당사자로서는 북한정권, 북한 시민, 그리고 통일된 한국을 상대로 할 입장에 있는 주변 외국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일에 대하여 불안하게 느낄 사람들은 남한에도 있으리라는 것이 언급되지 않았다. 남북통일을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쪽에도 있다. 우리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통일 이후의 심리적 문제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차재호는 통일 이후의 심리적 문제를 첫째 노동인력의 재편성에서 오는 문제, 둘째 다른 사상이나 생활양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만나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마찰의 문제, 셋째 남북한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상대적 지위변동이 빚어내는 문제, 넷째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생활고와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문제 등으로 나눠 말하고 있다(차재호, 1993).

우리는 독일의 통일이 가져온 문제를 알고 있다. 경제적 빈부의 차이 때문에 동독 사람들은 2등 시민의 처지가 되어 버렸다. 이는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 때문이라고 한다. 동독 사람들은 통일 이전의 생활보다 훨씬 못한 경제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 우리

경우도 남쪽에 의한 흡수통일이 그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과 우리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동일한 사회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동독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 동독과 소련의 관계는 북한과 소련의 관계와 다른 것이었다. 북한은 더 주체적이었다. 기아 상태에서 온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은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한다. 처참한 모습을 외국인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아이들을 위하여 늙은이들이 먼저 굶어 죽기로 한다든지, 그런 극한적 빈곤의 상태에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해 둔다든지 하는 그들의 정신적 자세는 방문자들을 감탄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외국의 원조를 당연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 주민들은 더 절박한 상황에서도 외국의 도움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내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한겨레신문, 1997).

북한 사람들의 정신력은 오히려 서독 사람들의 정신력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 경제적으로 통일되면 결국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게 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독일 사람들의 정신력을 두려워하는 말이다. 그런 독일 사람의 특성을 서독 사람들이 지켜온 것이다. 동독의 사회주의 정권은 오히려 독일 사람의 그런 정신력을 약화시킨 것 같다. 이는 시민들을 게으르고, 나약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남북관계는 어떠한가? 경제적으로는

남쪽이 더 부유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의존적이고 심지어는 예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인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남쪽의 우리 국민을 정신적으로 무책임하게 만들고 있다. 스스로 도덕적 질서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지도계층의 사람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다같이 무책임하게 되어 버렸다. 이는 통일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정신력이 남쪽의 우리국민에게 있느냐의 문제이다. 남쪽의 경제력과 북쪽의 정신력이 합쳐져야만 통일민족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은 독일의 흡수통일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한의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 참된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인간적 화합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한 후에 제도적인 통일을 모색하도록 해야한다.

한국심리학회와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에 참가한 중국길림성대학의 Che Wendo는 “중국의 통일에 관한 심리적 탐구”라는 발표에서 ‘조국통일에 있어서의 심리적 애로’를 말한다. 그 첫째 애로는 적대감이라고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대만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빈번해지고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오랜 적대감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쪽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적되는 심리적 애로는 두려움이라고 한다. 통일의 결과가 대만이 흡수되어 버리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생활수준이 낮아지거나, 개혁·개방정책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셋째 심리적 애로는 불신감이라고 한다. 오랜기간 분단되어 온 상황에서 생

겨난 오해와 불신이 쉽게 씻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적대적 행위와 비방적인 발언이 계속됨으로써 자기집단의 우월감과 상대에 대한 비난이 강화된다고 한다. 대만과 중국이 서로의 우월감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화합에 장애가 되는 오만과 우월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 장애요인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통일의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Che Wendo, 1993).

제도적 해결보다는 인간적인 해결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중국인의 전통이라고 한다. '70년대에 중국대륙이 개방되면서 서구의 기업인들이 교역의 길을 열고자 대거 중국으로 몰려들었는데, 많은 서구기업들이 중국기업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기업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고 만찬에 초대하거나 관광을 안내하는 일을 몇 개월씩 지속했는데, 서양인들은 기업이야기가 나오기만 기다리다가 인내력이 다해서 떠나 버렸다는 것이다. 기업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국인의 사고방식이라는 뜻이다. 인간적 신뢰가 형성되면 기업적인 계약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해결해 버린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관계는 제도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지만, 인간적인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인간중심 접근을 중요시하는 것은 궁극적이면서 동양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은 서양의 풍토에서 볼 때

예외적이고 특이하다. 동양의 문화풍토에서는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서구화된 동양을 말하자면, 인간중심적 접근이 새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일찍이 서구화된 일본이 특히 그렇고, 서구화를 뜻하는 근대화를 추진해 온 우리나라도 인간중심적 전통을 상실해 가고 있으므로 로저스의 접근방법이 새롭게 인식될 수 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접근은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신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우리의 문화전통 속에서 인간중심적 접근이나 인본주의적 심리학의 바탕을 찾는 일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로저스는 그런 집단적 자각의 촉진제 역할을 할 뿐이다.

제도적 통일이나 정치적 통일을 재촉할 것이 아니라, 인간중심적 접근을 통한 인간적 통일을 다져가야 한다.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깐 그들의 처지를 가능한 한 불리하게 만들려는 태도는 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의 권력체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체제의 붕괴를 피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을 불가능하게 한다. 통일을 위한 전쟁은 아무리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주의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모두의 희생이 되고 말 것이다.

1996년 12월 17일에 시작된 페루 일본대사관저의 인질극사건은 1997년 4월 22일 새벽 '극적인' 해결을 보았다. 페루정부측의 특수요원들이 감행한 특공작전으로 인질범 14명이 모두 사살되었고, 인질로 잡혀 있던 72명 중 한

사람만 희생되고 나머지 71명이 무사히 구출되었다. 세계의 언론들은 후지모리 대통령의 용단을 찬양하였고, 인질범들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인질범 중에 있었던 두 명의 10대 소녀들이 무기를 버리고 두 손을 들어 항복의 뜻을 표현했음에도 그대로 사살되었다. 또 다른 한 명의 인질범은 생포되어 어디론가 끌려가서 사살되었다. 이는 미국의 서부영화나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를 연상케 하는 특공대의 작전이 '과잉진압' 또는 '불필요한 사살'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 인질들에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페루의 대주교 아야쿠초 후안 루이스 시프리아니 신부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한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작전이 감행되었다는 것이다. 인질범과 그들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적대감, 두려움, 불안감 및 우월감이 함께 작용한 정치적, 전략적 해결책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해결방식은 현 페루정권과 그 체제에 저항하는 반군집단간의 화해와 통합을 저해하는 '심리적 애로'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인간중심적 접근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런 특공작전에 대한 로저스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다. 인간중심적 접근에 역행하는 작전이라고 비판할 것이 분명하다. 로저스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그는 공산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우리정부도 강릉 앞바다에 침투한 북한 잠수함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잉진압'이라든지, '불필요한 사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굶어 죽어가는 북한동포에게 온 국민이 나서서 돕겠다는 뜻을 정치적 이유 때문에 억제하는

것도 인간주의적으로는 납득될 수 없는 정책이다. 인간중심적 접근에서 볼 때는 이는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이해된다. 인간중심적 접근은 제도적, 전략적 또는 정치적 해결보다 인간적 해결을 중요시하는 방법이다. 평화통일의 문제를 학문적 차원에서, 또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다루고 촉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런 뜻에서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문화의 전통 속에서 그런 인간주의적 심리학의 뿌리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참고문헌

박영신(1995), *우리사회의 성찰적 인식*, 서울: 현상과 인식.

오수성(1993), “적색공포(Red Complex)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81-91.

이수원(1993),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사회발전”,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92-124.

이영이(1991), *Rogers의 인간중심 상담과 장자의 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창원대학교

이영희(1994),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철학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1), 1-20.

이장호(1993),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125-133.

차재호(1993),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1-17.

한국사회이론학회편(1995), *갈등과 우리사회*, 서울: 현상과 인식.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1990), *새로운 사회학 강의*, 서울: 미래사.

Campbell, Elizabeth(1984), “Humanistic Psychology: The End of Innocenc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4(2), 16.

Che Wendo, “A Tentative Psychological Approach to China’s Unification”,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125-133.

Combs, Arthur(1995), “A Search for Personal Meaning”, Suhd, M. M.(ed.), *Positive Regard: Carl Rogers and Other Notables He Influenced*,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159-174

Freire, Paulo(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Seabury Press.

Freud, S.(1948), *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 London: Hogarth Press.

Freud, S.(1948),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London: Hogarth Press.

Gordon, Thomas( ), “Teaching People to Creative Therapeutic Environments”, Suhd, M. M.(ed.), *Positive Regard: Carl Rogers and Other Notables He Influenced*,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301-338.

Heppner, P. et al.(1984), “Carl Rogers: Reflections on His Lif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3(1), 14-20.

Kirschenbaum, Howard(1995), “Carl Rogers”, Suhd, M M(ed.), *Positive Regard: Carl Rogers and Other Notables He Influenced*,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1-104.

Kirshenbaum, H. and V. L. Henderson eds. (1989), *Carl Rogers: Dialogues; Conversations with Martin Buber, Paul Tillich, B. F. Skinner, Gregory Bateson, Michael Polanyi, Rollo May, and Others*, Boston: Houghton Mifflin Co.

- May, R.(1972), *Power and Innocence, A Search for the Source of Violence*, New York :Norton.
- O'hara, Maureen(1995), "Streams", Suhd, M. M.(ed.), *Positive Regard: Carl Rogers and Other Notables He Influenced*, Palo Alto,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 Orlov, A. B.(1992), "Carl Rogers and Contemporary Humanism", *Journal of Russian and East European Psychology* 30(1), 36-41.
- Rogers, Carl R.(1978), *Carl Rogers on Personal Power : Inner Strength and Its Revolutionary Impact*, London : Constable and Co. Limited.
- \_\_\_\_\_(1987), "Steps Toward Peace 1948-1986 Tension Reduction in Theory and Practice", *Counseling and Values*, 32(1) 12-16
- \_\_\_\_\_(1970), *Carl Rogers on Encounter Group*, New York : Harper and Row.
- \_\_\_\_\_(1973), "Some New Challenges", *American Psychologist* 28(5), 379-387.
- \_\_\_\_\_(1978), *Carl Rogers on Personal Power : Inner Strength and Its Revolutionary Impact*, London : Constable and Co. Limited.
- \_\_\_\_\_(1980), *A Way of Being*, Boston : Houghton, Mifflin.
- \_\_\_\_\_(1982), "A Psychologist Looks at Nuclear War : Its Threat, Its Possible Prevention",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2(4), 13-17
- \_\_\_\_\_(1987), "Theories, Peace, International Relations, Conflict Resolution", *Counseling and Values* 33(1), 12-16
- \_\_\_\_\_(1987),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the Behavioral Scientist to World Peace", *Counseling and Values*, 33(1), 10-11
- Rogers, Natalie(1995), "The Creative Journey", Suhd, M. M.(ed.), *Positive Regard: Carl Rogers and Other Notables He Influenced*, Palo Alto,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175-226.
- Sanford, Ruth(1995), "On Becoming Who I am", Suhd, M. M.(ed.), *Positive Regard: Carl Rogers and Other Notables He Influenced*, Palo Alto,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373-438.
- Skinner, B. F.(1971),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 Alfred A. Knopfs.
- Solomon, Lawrence, N.(1990), "Carl Rogers' Efforts for World Peace", *Person-Centered Review* 5(1), 39-56
- Thorne, Brian(1992), *Carl Rogers*, London : Sage Publication.
- Tsuge, Haruko & Akira, Takeuchi(1995), "A Unique Inner World", Suhd, M. M.(ed.), *Positive Regard: Carl Rogers and Other Notables He Influenced*, Palo Alto,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227-274.
- Vasconcellos, John & Diane, Dreber(1995), "Toward A Person-Centered Politics", Suhd, M. M.(ed.), *Positive Regard: Carl Rogers and Other Notables He Influenced*, Palo Alto,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339-372.



# Psycho-Social Conflict and the Person-Centered Approach

Young-Hee L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arl R. Rogers(1902-1987) had actively participated in various problems of psycho-social conflicts especially in his later years. He had shown the way a facilitator could help dissolve the antagonizing feeling between the parties in conflict resolution. Despite Rogers' impressive accomplishments in those experiments there were criticisms and arguments against his personal problems to the broad psycho-social conflicts between groups of people.

Rogers had not been hindered by his critics. His optimism and firm belief in the facilitator's work in dissolving psycho-social conflicts stems from his trust in the power of human goodness. Whereas other humanist psychologists believe the dual nature of good and evil in man, Rogers believes the good nature in every person as the more fundamental potential to be facilitated. This Rogerians optimism and, humanism could facilitate in overcoming psycho-social barriers that stand against the peaceful unification of our country.